

지난 줄거리 : 갑자기 스틸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RS-8호. 알고 보니 RS-8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었다. 스틸로는 RS-8호를 데리고 키스트의 생체대사연구센터를 찾아가ندا.





손 코네리
(영화배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브루스 윌리스
(영화배우)



사회적으로 대머리에 대한 편견이 심합니다. 그리고 대머리를 치료하기 위한 약도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대머리는 병이 아닙니다. 대머리가 된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머리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해요.



*생체대사연구를 하고 있는 실험실의 모습과 국내 최고의 장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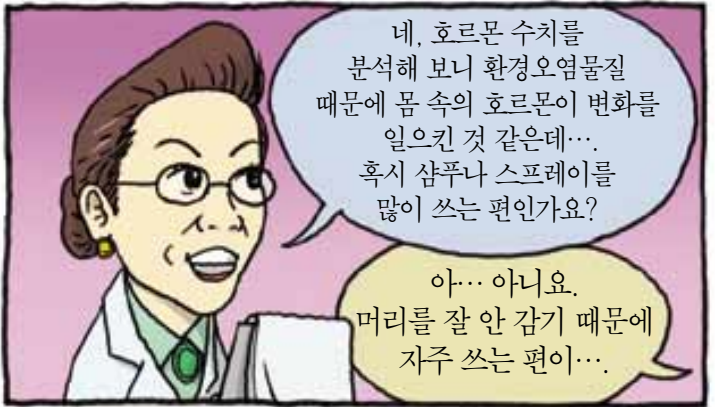
생체대사연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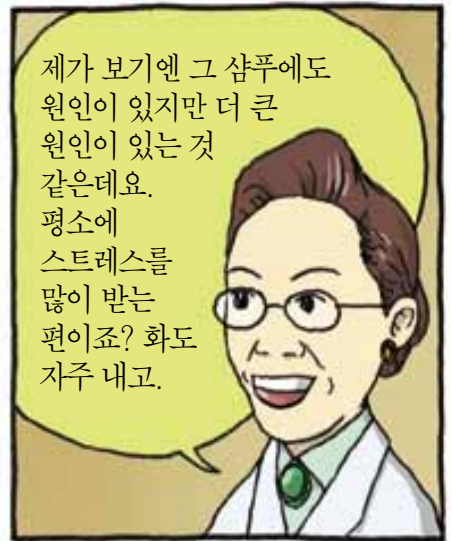
대사체를 분석해 보면 탈모증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탈모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나 다른 질병의 원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되면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탈모의 원인은 크게 유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사체 분석을 통해 호르몬의 변화를 분석하면 어린이의 머리카락에서도 탈모 가능성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이 있는 호르몬의 수치를 정상적으로 돌려 줌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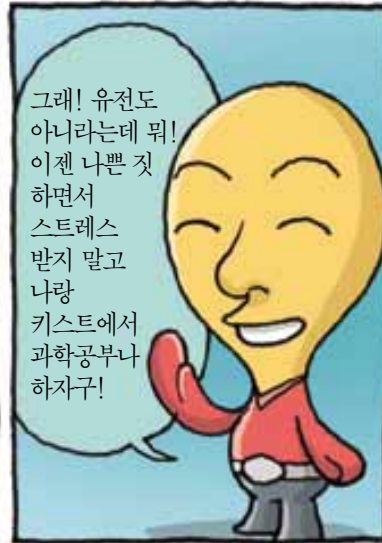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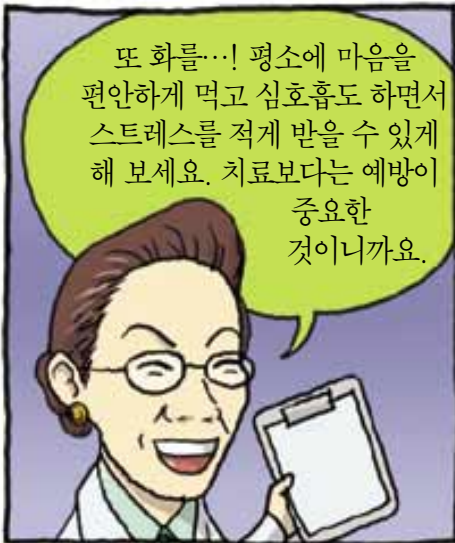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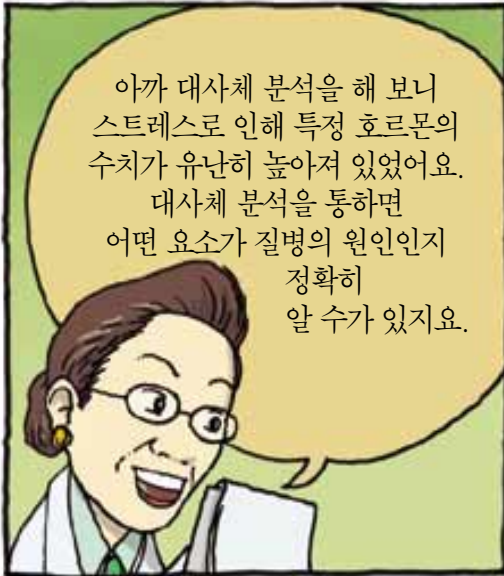


대사체학은 현재 선진국에서 미래국가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생체대사연구센터도 약물대사연구실, 미량잔류물질연구실, Biocomputing Lab을 포함한 세 개의 국가지정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생체 대사연구센터편 끝